

사순 제 2 주일

기도서 P. 252 A해

- 1독 (창 세 12, 1-4a절)
- 2독 (디 모 후 1, 8b-10절)
- 복음 (마 태 17, 1-9절)

숲 정 이

발행인	법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 강 톤 □



“한 백년 살고 싶어”

범 영 배 신부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라고 어느 가수가 부른 대중
가요의 구절이 생각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보고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찮으시
다면 제가 여기에 조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
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예
수님께 간청하였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 야
고보, 요한사도는 정말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이제까지
자기들의 스승으로 모셔왔지만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
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신’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 보았
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보고 놀랐던 예수님을 현대인들은 그저 지나
치고 있습니다. 지금에도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안(肉眼)으
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철학자
는 교만하게도 “神은 죽었다”라고도 이야기 합니다.

옛날에 가난한 선비에게 시집간 아낙네가 매일 방에
앉아 책이나 읽고 공부하는 선비를 옥하고, 또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후에 과거에 급제한 선비가 금
의환양(錦衣還鄕)하는 것을 보고 같이 살 것을 간청했으
나 일언지하(一言之下)에 거절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비에게 시집간 아낙네가 선비를 보는 안목(眼目)이
있었다면, 대감마님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런 모습을 보
려면 육안(肉眼)이 아닌 신앙의 눈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를 갖추고 있을 때 우리들은 영
광스런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을 뵈옵게 되어,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한 백년 아니 영원히 그림같은 집에서 살
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겠습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를 갖추어 신앙의 눈
으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뵈도록 사순절동안 회
생과 극기를 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생활을 해야
겠습니다.

(중앙 전주교회 보좌신부)



객 토 사 업

농한기(農閑期)에 시골에서는 <객토사업>을 한다. 참
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니, 꼭 해야 할 일
이다. 「새 우리말 큰사전」에는 객토(客土)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토질을 개량하려고 영양분이 많거나 질이 다른 땅
곳의 흙을 파서 논밭에 들이는 일, 또는 그 흙. 흙들이기
화학비료를 많이 쓰는 요즘은 흙의 성분이 차츰 나빠
져 간다고 한다. 퇴비를 많이 장만해야 한다고 한다. 아
마 세상만사가 과학 만능으로만은 해결이 안되는 성질
다. 오히려 과학의 힘으로 우리가 된 땅을 자연의 힘으
로 치유해야 한다. 어쩌면 과학만능을 내세워 자만에 빠
진 인간에게 경종을 울리는 일이 아닐까? 역시 자연은
보호되어야 한다. 역시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느님의 뜻
은 놀랍고도 무한하다.

농사짓는 일에 꼭 필요한 이 객토사업에 함께 걱정해
야 할 문제들이 간혹 있는 모양이다. 어떤 시골 이야기
이다. 일의 효율화를 위해 어떤 면에서는 지정된 업자가
기동력을 이용해서 흙을 공급해 준다고 한다. 어쩌면 서
로 편리한 일이다. 그런데 가끔 이런데서 문제가 생긴다
공급받은 흙의 반절가량이 자갈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
이다.

항의를 하니, 자갈을 골라 놓으면 실어가겠다는 것
이다. 자갈을 고르는 품값은 어떻게 계산하겠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아예 군소리 몇마디로 참아
넘기는(?) 불만해소다.

어떤 때는 땅임자와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흙이 퍼부
어지는 일도 있다고 한다. 적어도 자본주의 국가라며 선
택의 권리라도 있어야 할텐데.

이 <소리>는 소리를 지르기 위한 소리가 결코 아니다
더 밝을 내일을 위해 외치는 것이다. 소리를 지르면서도
그런 고독을 느끼는 왜일까?

숲 정 이 산 채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마라!
(마태오 4:1-11)

사순절 장애물경계

권력 명예 재물



사도 회장님 밀정개 좀 주실래요?

김 병 열 신 부

1978년 1월 9일 오후 8시경 밝은 태양빛을 먹으로 삼켜버린 설날 초이들의 먹발 속에 간간히 울타리 사이로 비치는 빛에 한 두송이의 눈송이가 말 없이 땅위에 떨어지고 있었다. 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임종하고 있다는 어느 교우의 말에 성체를 모시고 냇물 소리를 들으며 길인지, 물인지 분간하기 힘든 상하 꼴짜기를 거스려 올라갔다.

이미 임종자는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의사도 아닌 주제에 맥을 짚어보니 15초도 못되어 41번을 뛰고 있었다. 이미 병자성사가 시작되어 병자의 이마에 성유를 바르면서 “주여 성유 바르는 이 행위로……” 경문을 외울 때 그 몸을 간질병이 또 시작 되었다. 아버지는 이그러진 얼굴을 사제에게 보이며 양으려고 수건으로 가리었지만 볼 것은 다 본 것이다.

“……환자의 병을 다스리시고 그 아픈대를 낮게 하시며” 경문을 외우지만 병자성사에 있는 경문이니까 외우는 것이지 차라리 사람의 구실을 못하고 인간의 대우를 못 받을 바에야 “주님, 이 영혼을 거두옵소서” 하는 심정이었다. 병자성사가 끝날 때 간질병은 두 번이나 연이어졌다.

20여세의 청년이라 할까 생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는 환자가 오히려 죽기를 원하는 내가 망령일까? 그것이 그제 아니리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모래에 있었을 때 아버지는 본당 회장(지금 사도회장)직을 맡고 있었을 때였다. 6·25사변의 전란으로 수류성당의 목조 건물이 파괴 패잔병들의 불장난으로 잿더미가 되고 새 성당을 건축 중에 있었을 때 야밤. 복면한 강도가 들어와 돈을 내라고 위협을 하였다. 하지만 사도회장은 부재중이어서 강탈은 당하지 않았지만 임신중에 있었던 부인은 놀래 나중에 해산을 하였지만 날 때부터 간질병을 앓았다는 것이다. 커갈수록 병은 심하여 불에 태이고, 정신력은 성장치 않아 아이와 같았었다. 병자성사를 거행한 지 그 이튿날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나의 귓전을 울렸다.

미사가 시작되어 세상을 떠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드렸을 때 나의 콧잔등이 새끈함을 느꼈다.

강론이 시작되었다.

교우 여러분 한 교회의 사도회장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의 아버지가 사도회장직을 맡지 않았더라면 여기에 젊은 나이로 베드로는 말없이 누어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금년 봄쯤은 신체검사를 받아 군에 입대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도회장이었기에 강도가 침입하여 모친이 놀래고 아이는 태중에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간질병에 걸리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베드로가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들어서 온 가족이 그 고생을 할 때 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한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성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느님께 재물로 바쳤듯이 잠들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께 희생으로 바쳤습니다.

사도회장직이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본당 신부가 한 교회의 아버지라면 사도회장은 어머니인 것입니다.

어려운 어머니라는 본질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도회장과 사도회 간부되시는 분은 틀림없이 자기 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상이어야 합니다. 일년도 채 못되어 어려우니까 사표를 내던진다든가 한달에 한 번 회합할 때 일꾼만 빼죽 내미는 것이 결코 사도회원은 아닌 것입니다.

어려운 직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신공 중에 잊지 마셔야 합니다.

베드로를 위한 미사가 끝났을 때 밤 하늘엔 별이 빛나고 마당 가운데는 모닥불만 타고 있었다.

주여, 망자의 영혼을 안아 주소서.

※ 밀정개 (=밀쟁개) 잎사귀 뒤에 작은 가시가 많은 데 옛날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가 잎을 뜯어다가 번소에 두고 며느리에게만 용변이 끝나면 뒷처리를 하게 하였다는 풀(지금의 휴지)

※ 철 없을 때 아주 급해서 번소에 앉고 보니 휴지가 없을때 허물없는 어머니나 형제에게 칩간에서 소리지르는 소리. 나 밀정개 좀 갖다줘! 사도회장과 교우간에는 이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수류성당 주임신부)

M^cGREGOR

☆삼성물산☆

맥그리거

선 주 특 약 점

고급화된 기성복(성인용, 아동용)

유 소 연 (울리안나)

☎ ④ 4 4 5 1 품년제과 본점앞



□ 판매사원 모집 □

여기 당신의 능력에 따라 최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 영업소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최고급 화장용 미용비누를 판매하는 업소입니다

1. 모집인원: 약간명
2. 자격: 중졸이상 활동력이 강한 여성
3. 대우: 월 10만원이상 4. 기간: 78.2.23(목)까지
5. 접수장소: 전주시 천동 1가 200-1 ☎ ④ 8466

모세실업(주) 전주 영업소

□ 새 사제의 소리 □

기 다 림

—하느님은 우리의 마지막 기다림—

정 태 현 신부

지난 봄에 가까이 지내는 동료 하나가 9백만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 그 소식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지 우리 사이에는 은연중에 복권 붐이 일기 시작하였다. 복권은 비교적 우리같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 젊은이들은 기다리기가 힘들다.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라도 있을 법한 행재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 행재는 생기면 좋고 안 생기면 그만이다. 부담없고 후회도 없다.

큰 형님이 처음으로 장사에 손을 대려 할 때 열집 할머니가 이렇게 간섭하였다. "자네 장사를 하려거든 비누나 성냥 장사부터 시작하게."

무슨 의미가 담긴 종교일까? 비누와 성냥은 이득이 박하다. 그러나 가정마다 없어서는 안될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사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들은 소모가 빠르므로 자주 사지 않으면 안된다. 적은 자본으로 물건을 들여놓고 부지런하게 파는 동안 장사의 기술도 쉽게 습득할 수 있다. 할머니의 충고를 받아들인 큰 형님은 비누와 성냥 장사로 생활의 기반을 착실하게 닦아 지금은 자그마한 점포를 두 개나 갖고 있다.

처음에 신부가 되겠다고 생각한 이후 20여년이 흘렀다. 무척이도 오랜 세월을 기다려 온 셈이다. 그러나 지난 세월을 반성해보니 기다리지 못하고 보채며 불안해 했던 순간들이 조용히 기다렸던 순간들보다 엄청나게 더 많았던 것 같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혼자서 견줄하게 단정을 내리고 즉시 행동에 옮겼다. 결과는 번번히 실패로 끝났다 수많은 실패를 거둬하고 이제야 기다림의 의미를 깨달았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하고 한가로이 앉아서 공상한다는 말이 아니다. 기다림은 한 걸음 한 걸음 정실하게 내디디면서 하느님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현대를 성급하게 진단해 보려면 '기다림이 부족한 시대'라고 말하고 싶다. 너무 쉽게 무너지는 전통적인 가치관들, 끊임없이 바뀌는 정부정책, 철따라 변하는 갖가지 유행들..., 변화 그 자체가 두려움이나 거북해서가 아니라, 변화 그 언저리에 거리의 휴지조각처럼 내동댕이쳐지고 짓밟히는 가치들이 아까와서다. 기다림은 이러한 가치들을 주워 더 높은 가치로 승화시키는 냉마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자못 심각한 질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에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간청 속에서 몸 전체로서 성실하게 이루어나가는 기다림의 차원이다.

우리 눈에는 선이 악 앞에서, 정의가 불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력한 투쟁을 언제까지 계속해야만 하는가? 이 절박한 싸움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끝날 것인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 가지 믿어도 좋은 것은 지금 승리하는 저 악과 불의는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쓰러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분의 손길은 생각보다는 섬세하고 자상하며, 영동할 만큼 대범하다. 그분에 대한 기대와 신뢰 없이 아무리 외쳐본들 불안과 공허감 속에서 한 걸음이라도 헤쳐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느님은 우리의 마지막 기다림이다. (월명동 성당 보좌신부)

요심이 (238) 김병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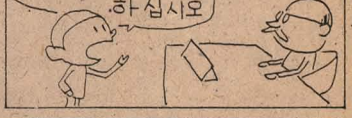
고기값이 비싸다고 무슨 좋은수가 없을까? 주부들이 아우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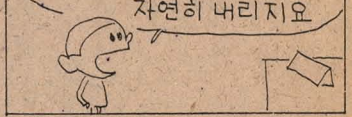
좋은수가 있어요. 뭔데?



은국민에게 천주교를 믿으라고 하십시오. 그건 왜?



천주교 신자는 사순절에 고기를 안먹으니까 고기값이 자연히 내리지요.



□ 직원 채용

1. 근무처...윤정이 편집실
 2. 제출서류...①자필 이력서
② 본당 신부 추천서
 3. 심사...21일(화) 오전9시부터 교구청 응접실
- ※ 윤정이 4면 공지사항 참조

◇경윤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 원아모집 □

성 체 유 치 원

자 격 : 만 5세-6세 어린이
기 간 : 2월 1일-2월 28일
주 소 : 중노송동 성체유치원 내
전 화 : ① 8408, ② 3231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열 중앙 시장통
(전화 ⑤ 4577, 5789)

□ 이전 개업 안내 □

표구, 병풍, 보료, 스킨

문 화 양 행

하 정 희(엘리사벳)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2-3170, 6123

교우님들의 많은 협조를...

난 방 시 설 은

한국온수온돌

이리 구시장 ☎ 4940
전주 최정식 ☎ ⑧ 8342
군산 청파시장 ☎ 3032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영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사순절입니다. 뜻깊게 보냅니다.
 - ① 사제양성 후원을 위해 각 가정에 나눠 드린 예지 저금통에 정성을 모아 봉헌합니다.
 - ② 사순절동안의 매주 금요일은 금육재를 지키는 날입니다(만 14세부터)
 - 가톨릭 농민회 총회(23-24일, 가톨릭 센터)
 - 군옥지구 중고생 합동미사(25일<토> 오후 5시)
 - 월요 기도회(20일<월> 오후 7시 반, 가톨릭 센터)
- 숲정이 편집실 근무 직원 모집...심사 21일<화> 오전 9시 반, 교구청 응접실
자격...① 분당 신부 추천을 받은 미혼 여자 교우 ② 편집 경력이 있는 자
- 교구 연합 판매 안내(값 500원)
「교구 공동체의 발전을 다짐」하는 교구 연합을 교구청에서 관대중입니다.
수록도용...각 분당, 기관, 교구단위 단체 소개...구역장 명단까지 수록되어 있음.

(중앙)

전화 ③3651
③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김진배
보좌 신부 범영복
사도 회장 이

- 성모회 월례회: 19일 공식미사 후, 강당
- 사순절 특별강연회: 22일부터 매주<수> 밤8시, 강당
- 유아세례: 24일<금> 어머니 미사 후
- 주일학교 졸업식: 25일<토> 오후 4시, 성당
- 십자가의 길(성로신공): 매주<금> 저녁미사 후
- 모름맛이 꽃놀이: 21일<화> 오전 10시 반, 강당
참석자-회장단, 교문, 감사, 구역장, 반장, 각 신심단체장
- 수녀님들 이동: 동정 성모회 16일부로 철수
이탈리아 수녀님 후임으로→유리오시니아 수녀님
홍메레사 수녀님 후임으로→이빌지니아 수녀님
방글라바 수녀님-유치원 가시고 오시는 날-23(목)

(노충동)

전화 ② 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웅희
사도 회장 김성록

-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전 사도회장님(박종용),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신임 사도회장님 성록씨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 예비자 교리, 오늘부터 김막달레나 수녀님께서 지도
- 주일학교(교리<토> 오후 2시, 미사<토> 오후3시)에 협조를.....
- 78년도 교무금 아직껏 신입 못하신분 이달 말까지 신입 바랍니다..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충근
사도 회장 유제상

- 교무금은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예물입니다.
자신 신업에 한 분도 빠짐이 없도록
 - 애령회 성금에 많은 협조를...
 - 본당 신학생 후원성금 협조해 주신분 감사드립니다
 - 부활 초 봉헌(최정자, 안나) 감사합니다.
 - 성서대금 미납자 속히 완납바람: 임근성, 한 베드로(각 2천원), 장병순, 홍성철(각 2,500원), 한준자, 김은식, 주영란(각 1천원), 김종태(3천원) 송정님(1,500원)
 - 한 손에는 성서를, 또 한 손에서는 기도서를...
- 지난주 봉헌금: 72,70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 예비신자 환영식: 3월 5일 공식미사 중
말구유에 봉헌한 서약서대로 빠짐없이 나오세요
- 오늘 주일학교 일일 교장 최용구(요셉)씨,

- 주일학교 졸업식
-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되신 분들 사무실에 연락 바랍니다
 - 돼지 저금통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사무실에서 드립니다.
 - 신용조합 정기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통장과 인장지참, 기념품 드립니다.
 - 교무금과 주일금, 자기 봉투를 찾아서 봉헌합니다.
 - 공동체 성가연습: 매주일 공식미사 전, 사무실에서 판대중
- 축 결혼! 이득재(비오)군, 김희식(세시리아)양, 오늘 12시 반
- 지난주 봉헌금: 152,085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 부녀주일, 10시미사 후 월례회
 - 신용조합 정기총회: 19일 오후 2시
 - 주일학교 가정방문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십자가의 길:<금> 저녁미사 후
 - 병자 봉성제: 매주 일요일, 부제님
- 지난주 봉헌금: 44,075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 예비신자(아동반, 성인반, 직장인반) 사무실에 접수
※ 교리시간 안내: <화>·<수>·<목> 오후 7시 반, 유치원
 - 요한회 월례회: 26일 공식미사후, 꼭 참석하세요
 - 누갈다 유치원 원아모집: 원서교부-2월 20일까지 원서접수-2월 20일~25일, 자격-1972년 3월 2일~73년 3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
 - 인성회 교육위원 교육: 19일 공식미사
 - 반상회 일정: 금양동-21일, 태평동-23일
- 지난주 봉헌금: 116,235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한성
보좌 신부 이순희
사도 회장 유유석

- 꼬미시움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 푸르실로 월례회: 오늘밤 8시
- 사순절 십자가의 길: 매<금> 저녁미사 후
산상미사: 매<토> 오후 4시, 치명자산
- 성당 의자 개조(사도회 결의)
- 신용조합 총회: 1차 20일(성원미달시 23일)
- 가정심방 계속, 저금통 분배
- 학생회 임원개편: 회장-김태환, 부회장-양혜연
학생임원 회합식 각팀 지도자님들의 동석 바랍니다
- 인사이동: 장수녀님, 김수녀님 후임 김민다, 뱀마리아 수녀님 지난주 봉헌금: 160,300원

十 이 전 안내



반주법(명곡, 유행가), 화성학, 성악(독창, 합창), 가수지망생, 음대성악과 진학자 발생지도

전자울겐, 짜즈피아노

개인지도(☎ 2-6111)

이 일 규 (알로이시오)

세광음악학원(전주극장동편입구2층)

- 세 부 안내 -

- 반주법: 바이엘 정도 소화자는 3, 4개월이면 주요 리듬 화음 넣어 전노래 반주할 수 있음
 - 성악 명곡: 음대 진학자, 취미로 배우고파 하는 자
가요: 가수 진출시까지 발생, 수속 도움
합창: 일주 2, 3회 출장지도
- ※ 생활음악(독보력, 가벼운 반주)으로 명량분위기 조성
주창